

금목서·은목서 향기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아침을 열며



정연권
색향미야생화연구소장

달콤한 향기가 바람결에 실려 와서 몸을 휘감는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상쾌해진다. 금목서와 은목서 꽃이 피기 시작했나 보다. 들뜬 마음으로 한달음에 달려가 봤다. 몇 송이 꽃에서 향기가 진동한다. 가녀린 줄기와 잎 사이를 보니 송알송알 꽃송이가 피어날 채비를 하고 있다. 만개할 날이 기다려졌다.

구례군에는 금목서와 은목서가 많다. 필자가 지난봄 구례읍 봉동, 봉남, 봉북, 백련리 일원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조사한 결과 10년 정도 성목이 200 여주가 있었다. 주로 금목서이고 은목서와 은목서를 짝으로 심은 가구도 많았다. 달콤하고 상큼한 향기에 행운과 번영을 상징하는 정원수로 사랑받아왔다.

목서(木犀)는 나무껍질이 무소의 피부와 뿔이 닮았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꽃 색깔이 금빛은 '금목서' 은빛은 '은목서'라 한다. 무소는 코뿔소의 순우리말로 흔히 무쏘라 한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은 "게으름 없이 열심히 묵묵히 부단히 홀로 정진하라"라는 뜻이다. 금목서는 만리향(萬里香)이라고도 한다. 향이 만리(萬里)까지 간다는 의미다. 샤넬 No5 원료로 사용돼 향수에 따뜻한 복합성을 더해준다고 알려져 있다. 은목서는 천리향(千里香)이라고도 하며 금목서보다 다소 늦게 꽃이 핀다.

며칠을 기다리니 여기저기 꽃향기가 가득하다. 구례는 향기 천지가 됐다. 향기에 이끌려 나서는 발걸음이 가볍고 경쾌하다. 향기를 좋아하는 사랑꾼이 되고 향기를 찾는 탐색꾼이 됐다. 이 멋진 가

을날 향기를 찾아다니는 건강한 몸이 있어 감사하다. 모두가 은혜요 축복이다.

구례읍 봉북리에 있는 가장 오래된 은목서를 찾았다. 물결치는 수관의 위용에 압도되었다. 짙은 안개 속에서 보니 신비로운 자태다. V자형으로 갈라진 줄기에서 폭 10, 높이는 8m 정도의 거목이다. 담장을 넘어 골목까지 가지가 뻗어 있다. 잎사귀 사이 감춘 꽃에서 향기가 조금씩 표출되고 있다. 이 자리는 1940년부터 막걸리를 빚는 공신주조장이 있었다. 농부들의 고된 농사일을 잊게 해준 막걸리를 빚던 역사적인 자리다. 막걸리로 서민들과 농부들의 삶을 위무했는데 주인장은 떠나고 은목서만이 역사를 지키고 있다. 이웃에 사는 조선례(86) 할머니는 "19살에 시집왔는데 그때부터 있었다. 백 살 정도 되었을 거여."라고 했다. 김일수(80) 어르신은 "1970년대부터 이 앞에서 양복점을 했는데 막걸리가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가을에 꽃이 피면 향기가 너무 좋았다."고 회고했다.

향기를 따라 골목길을 걸으며 생각해 본다. 유난히도 뜨거운 햇볕과 여름을 견디고 잎과 뿌리의 부단한 노력으로 꽃을 피웠다. 하늘과 흙의 합작품이다. 금목서 향이 달콤하고 황홀하다면 은목서 향은 은은하고 상큼하다. 김춘수 시인 표현대로 금목서 향기가 농염하고 달콤한 포도주 같다면 은목서는 은은하고 상쾌한 잘 익은 막걸리 같다. 공신주조장에 은목서를 심은 것은 막걸리에 이 향을 담아 보려는 주인공의 마음이 아닐까. 가을빛을 머금은 은목서 향기로 빛은 막걸리는 '소박하고 정겨운 천향주(天香酒)'였을 터다. 꽃 색깔에 따라 향기가 다르니 신기하다. 서로 다르면서 비슷한 향기에 머리가 맑아지고 가슴이 시원해진다.

어느새 안개가 걷히고 파란 하늘이 눈

부시다. 다시 백 살의 은목서 꽃그늘에 앉아 꽃잎에 아롱진 햇빛을 안는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이 하늘빛에 투영된 꽃잎 속에 파묻힌 은은하고 상큼한 향기를 꺼내어 내게 건넨다. 하늘이 내린 향기는 보이지 않지만 느끼는 향기를 보고 있다. 향기를 듣고 있다 "향기는 꽃의 거울이요 아름다움의 척도다"라는 말이 가슴에 다가온다. 맞다. 그리운 어머니의 땀샘이고 헌신적인 사랑의 향기다. 하늘빛에 향기가 흔재한 풍경을 볼 수 있어 행복하다. 아름다운 가을에 향기가 있어 금상첨마다.

꽃향기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고도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는데 웅졸한 나는 그러하지 못했다. 여린 내 마음은 조그만 일에도 예민했다. 세상은 나의 작은 허점도 트집 잡고 흔들여 댔다. 나의 소심함을 공격하고 조롱했다. 그래서 늘 불안했고 초조했다. 모든 것이 일 육심 때문이다. 구례를 꽃으로 가득 채워보려는 욕망 때문이었다. 이제 꿈을 접었다. 동분서주하며 부질없는 근심 걱정으로 보낸 세월이 무상하다. 일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했던 모든 분께 깊은 사죄와 용서를 구한다. 자책과 상심의 마음을 달래주려는 듯 하늘에서 향기가 내려왔다. 신묘한 '천향(天香)'이다. 향기가 전하는 위로를 받는다. 향기가 마음을 어루만진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보이지 않으면서 느끼는 예술품이요 마음과 어우러진 향기는 고귀한 하늘의 선물이고 영혼의 결정체다. 영글어진 서로의 마음을 풀게 하며 마음속 상처를 치유해준다. 보이지 않는 향기가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을 변화시킨다. 반야심경의 "있음은 곧 없음이며 없음은 곧 있음이다"라는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의 뜻을 이제 서야 깨닫게 됐다. 이제부터는 혼자서 묵묵히 정진하리라.

社說

전남 의대신설 원칙과 결단 필요할때

‘통합vs공동’ 놓고 오락가락

전남 국립의대 설립 방식을 둘러싸고 혼란이 가중하고 있다. 전남도가 동·서지역 통합의대 설립을 위해 목포대, 순천대가 합의했다고 밝힌 가운데 불과하루만에 목포대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면서 혼선만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전남도는 지난 14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김문수 의원, 이병은 순천대 총장, 송하철 목포대 총장이 참석한 오찬 자리에서 순천대와 목포대가 큰 틀에서 통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1도 1국립대 취지에 따라 양 대학이 통합하게 되면 이를 통해 지역에 더 큰 발전을 기할 수 있다"며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의대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전남도의 발표 하루만에 목포대 등이 전남도의 통합 합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목포대는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원칙적으로 공모를 통해 의대 입지가 빠른 시일 내에 정해져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통합대학에 기반한

의대 신설 추진의 취지가 좋더라도 실현 가능성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의대 설립 방침을 놓고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여왔다. 전남도는 애초 통합의대를 추진했다가 여의치 않자 예산 10억원을 들여 공모를 통한 단독의대로 선회했으나 순천대와 순천시 등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자 공동의대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공동의대에 대한 회의론까지 확산하면서 공동의대 대신 통합의대 선회로 혼선만 야기시켰다.

공동의대란 두 개 대학이 한 개의 대를 두 개 캠퍼스에 운영하는 것이고, 통합의대는 대학 통합을 통해 한 개의 의대를 캠퍼스 한 곳에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남도가 여러방안을 고심하는 것은 동·서부 갈등을 해소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려는 노력으로 엿보인다. 문제는 원칙이다. 통합이나 공동이나를 놓고 전남도가 중심을 잡지 못한다면 자칫 전남 국립 의대 신설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지역 숙원인 국립의대 설립을 위해서는 결국 전남도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

수질 개선없는 영산강의 미래는 없다

비점오염원 저감 예산 93% 삭감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한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삭감된 영산강 비점오염원 저감 예산을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영산강환경영역청의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 예산은 매년 줄어들어 내년 예산은 2022년과 비교해 93% 삭감될 예정"이라며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도 최대 삭감 폭이다"고 지적했다.

영산강환경청은 비점오염원 저감 예산이 줄어든 것은 환경청의 일부 비점오염사업 종료에 따라 예산 격차가 커진 것이지 삭감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영산강 수질개선은 일회성의 사업이 아니다. 꾸준한 개선노력이 뒷받침돼야 수질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단순히 관련 사업종료로 예산이 줄었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영산강 수질은 다른 4대강 중 최하위로 평가된다. 생활용수로 이용이 불가능한 농업용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문제는 영산강이 농업용수 수준으로 관

리가 이뤄지다보니 수질개선이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영산강은 상류의 경우 1-2급수 수준에서 광주 도심구간을 거치면서 3-4급수로 현격히 하락하며 수질 악화가 이뤄지고 있다. 도심 구간의 비점오염원 유입이 수질악화의 원인으로 꼽힌다. 콘크리트 보 등 인공시설로 인해 자연 정화 기능도 상실됐다. 적극적인 비점오염원 저감 예산 확보로 수질개선 노력이 절실하다. 남도의 젖줄인 영산강을 통해 미래 100년을 준비 중인 광주시와 전남도는 영산강을 활용한 미래전략을 세우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광주시의 영산강 100리길 Y프로젝트다. 영산강을 미래 먹거리로 활용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질개선'이 필수다. 세계적인 국내·외 도시들은 강을 중심으로 발전을 꾀하고 있다. 비점오염원 저감 예산 삭감은 영산강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방지하는 것과도 같다. 찬란한 역사와 문화 융성, 산업화까지 꾀하고 광주·전남 사·도민에게 사랑받는 강이 되기 위해서는 '맑은 물이 흐르는 영산강'을 만드는 게 우선돼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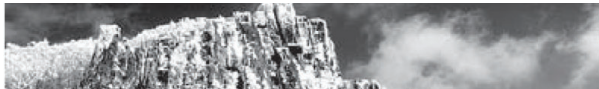
@jinilbo
진일보 인스타그램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Kakao Talk: 진일보
E-Mail: jeb@jinilbo.com



서석대



'성즉위왕 패죽역적(成即位王敗則爲寇)'. 승리하면 왕이요 패하면 역적이라는 뜻이다. '이기면 충신, 지면 역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성계와 최영이 그러했다. 고려말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했다가 최영에게 패했다면 고려를 배신한 역적으로 기록됐을 터이지만 역사무대에서 이성계는 승자다. 위화도 회군으로 정권을 잡았고 마침내 조선왕조의 창업군주가 됐다. 이후 그는 온갖 찬사와 숭배 속에 무려 500년이나 떠돌아다녔다. 반면 패자 최영은 조선의 입장에서 역적이었다.

이기면 충신이요, 지면 만고의 역적이 되는게 스포츠 세계에서도 다반사다. 2024 KBO 정규리그 4위로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나선 두산 베어스는 지난 2-3일 5위 KT위즈를 상대로 2경기 연속 영봉패를 당하며 무릎을 꿇었다. 이로써 두산은 정규리그 4위팀이 지난 2015년 10개 구단 체제 시작 이후 처음으로 준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한 팀이 됐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정규리그 4위팀과 5위팀이 맞붙는데, 4위팀의 홈구장에서 1, 2차전이 모두 치러지고 4위팀은 1승의 어드밴티지까지 부여받는다.

4위팀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진행되는 만큼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지난 시즌까지 5위팀의 업셋(Upset)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와일드카드 결정전 도

입 10년 만에 두산이 희생양이 됐다.

때문에 이승엽 두산 감독은 지난 3일 2차전 종료 후 잠실야구장 중앙출입구 인근에서 "이승엽 나가!"하는 일부 두산 팬들에의 야유를 받게 됐다.

앞서 이승용 SSG랜더스 감독도 KBO 최초 5위 결정전에서 KT에 패하며 가을야구 진출이 무산된 뒤 SSG 원정팬들에게 퇴진을 요구받는 등 비판의 대상이 됐다.

광주를 연고로 하는 프로야구 KIA타이거즈는 올시즌 7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 컵을 들어올렸다. KIA는 이제 12번째 한국시리즈 우승 도전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난 4일부터 본격적인 담금질에 나섰고, 14일부터는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인근의 한 호텔을 통째로 빌려 합숙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시리즈를 대비해 선수들에게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기 위한 이범호 KIA 감독과 구단의 노력이다.

이범호 감독은 올시즌 초보감독 답지 않은 지도력으로 팀을 7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으로 이끌며 팬들에게 영웅대접을 받고 있다.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한국시리즈의 결말에 따라 KIA 팬들의 이범호 감독에 대한 대우도 달라질까. 이승엽 감독과 이승용 감독처럼 일부 팬들에게 비난받는 역적이 될 것인지, 아니면 충신으로 추앙받는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동환 취재2부 선임부장

全南日報	사창·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www.jinilbo.com m.jinilbo.com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inilbo.com